샬롬!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식구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2 주간 저희들의 탄자니아 선교지 방문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정대로 저희들은 사역지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가고 오는 여정, 특히 사역지에 도착하여 행한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교회 식구들의 기도의 힘이라 믿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5 월 9 일 미국에서 출국하여, 현지시간으로 10 일 오후에 탄자니아의 쥴리어스 니예레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도인 다르살렘 도시에서 1 박 한 후, 다음날 11 일 저녁 탕가라고 하는 도시, 우리 사역지에 도착 했습니다. 먼거리 긴 여정은 돌아 올 때에도 같았습니다. (25 일귀국) COVID 19 이후 처음 가진 여정이라 그런지 예전과는 다르게 매우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긴 여정을 바쁜 일정(계획)을 준비해 주셨고, 그 일정은 저희들과 사역지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정)은 다양했습니다.

1. 스텝들과의 미팅
   - 리빙스톤 중고등학교 스텝들과의 미팅
   - 탕가신학교 스텝들과의 미팅

2. 탕가신학교 모임
   - 탕가신학교 동문 모임, 예배 (전국에서 126 명 참여)
   - 탕가 신학교 동문들 중심으로 탄자니아 접경 이웃나라로 선교사 파송 논의 (먼저 말라위와 잠비아가 논의 됨) 및 씨드머니 후원
   - 신학교 재학생들과의 시간과 예배, 장학금 직접전달
   - "줌"(zoom)을 통한 강의 기획 중, 세번째 텀부터

3.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일정
   - 고등학교 졸업식 (39 명) 참여
   - 아카데믹 오피스와의 긴밀한 미팅

- 내년 캠프에 대한 논의 및 이웃 고등학교 방문

4. 지역교회들 방문 및 말씀사역

5. 지역교회 건축을 위한 기공예배 및 건축 시작(1 곳)
- 다른 1 곳의 예정된 건축을 위한 사전 답사

6. '애양병원' 견학 추진
- 애양병원 원장님과의 논의를 통해 확정 됨
- Clever Yohana, 리빙 스톤 고등학교 1 회 졸업생이며, 현 탄자니아 최고 의대 MUHAS 3 년에 재학중
- 실습기간: 올 9~10 월, 약 2 개월로 추진중

7. 이양후의 탕가신학교와 리빙 스톤
-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대로 발전해 가도록 격려
- 학교의 상황 점검 및 리더들과의 지속적 논의

8. 리빙스톤 Booklet 개정 및 인쇄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은혜 성경교회로부터 학비를 후원받고 있는 탕가신학교(Tanga Christian Bible College) 신학생 33 명과 이번에 성적 장학금 및 영어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과 Ashburn 은혜교회에서 후원하는 2 명의 학생들 그리고 미국 서부 오렌지 카운티와 한국에서 후원하는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보면서 선교에동참 하는 교회들과 후원자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동참하시는 세계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통로가 되길 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 드립니다.

2022 년 5 월 29 일
박윤석,김은래 선교사 드림.